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발없는 발로 손없는 손으로 ①

윤순복 <경북 영주시 휴천3동>

오 대산 그 깊은 골짜기에서 한학을 가르치시며 가난함을 청정함이라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가을이

다. "저 산에도 그 생명들이 다 있어." 아버지는 이 커다란 법을 아셨던 걸까. 난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가난하다. 산 등성이의 돌부성이 발을 일구며 일곱 살의 어린 나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먹고 예쁜 꽃고무신도 사 신을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인간은 저마다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라고 알고 산다. 어려움에 어려움이 꼬리를 물고 날 괴롭게 할 때에도 그때마다 희망은 언제나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의 결혼. 결혼식날 아침 쌍둥이언니의 머리를 만져 주며 한없이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던 미용사인 나. 페백바구니를 직접 꾸리며 세상이 싫었던 나!

그렇게 시작한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고행이었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놓고 먹는 남편이 술취한 밤이면 어깍살이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때!

살다는 사람에게 결혼 안하면 죽겠다며 협박하던 협박으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의 행동은 차라리 배신이었다.

1년 뒤에 태어난 첫째. 태어나 백일 밤낮을 꼬박 울던 아이. 아이를 낳고도 달라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난 그저 도망가고 싶었다. 하지만 자식은 예를

이라고 했는가. 엄마 아빠를 떠나신 아무에게도 가려 하지 않는 발을 보면서 또다른 시작을 생각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남편은 공무원이 되고 아이는 풀이 더 되었다.

"배달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생가가 있는 그곳에 시집가서 7년만에 남편 직장이 있는 고향 오대산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박봉의 남편. 어린 세 딸을 데리고 군사장군의 가시같은 효를 속에서 살아가기란 무척 어려웠다. 미용기술이

있었지만 자격증이 없던 관계로 써먹을 수도 없었다. 자기마냥 농촌이었기에 남편으로 근근히 살 수 있었다. 어린 자식들은 새침으로 나온 땀이나 우유를 기다리며 저녁이면 온종일 흥두성이기 되어서는 못한 예미를 기다렸다. 엄마보다는 그 새침을 생각하면서.

이런 오대산 골짜기 골짜기로 나뭇잎을 뜯으러 다녔다. 남들보다 작은 체구의 마른 나는 언제나 '내가 더 많이 뜯어야 아이들 새우깡이라도 사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그런지 나뭇잎 많이 뜯는 나를

남편을 떠나려 할 때마다 천진한 세아이 눈망울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보고 사람들은 칼로 베어오지 않나 하고 의심하곤 했었다. 국립공원 내였기에 자연훼손방지 차원에서 조를 짠 채로 갔을 때였기 때문이다.

때때로 남편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세 딸의 천진한 눈이. 엄마의 새침을 기다리는 께만 눈동자의 그 아이들이 내 발목을 붙잡았다. 큰 애는 어려서부터

아인 아빠가 참 이해해주는 편이어서 그날도 "넌 죽이지 않을거야" 라고 말했다. 남편이 잠들기를 바라며 보채지도 않는 아이들과 그 속에서 한참을 있다 보니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며시 나와 애들을 재우고 보니 큰딸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 새벽에 아이 이름을 부르며 동네를 헤매고 있는데 달빛에 하얀 내의를 입은 계집애 하나가 훑쩍거리며 맨발로 내게로 왔다. 죽기 싫어서 10분거리의 초등학교까지 갔다 왔다면서.

지 금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전 생애에 알게 모르게 지어놓은 내 괴보임을 알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한탄하는 마음 그지 없지만 당시엔 가슴을 칼로 저미는 듯 이리저리만 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또다른 목재물림으로 정권이 바뀌고 큰 애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난 초등학교 운동장도 못가본 사람이다. 하지만 남편은 고등교육을 받은 이었다. 그런 그가 딸들이 있던 없던 주위 사람들이 있던 없던 "병신같은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고행이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마구 때리고...

유독 잘 따지고 대들곤 했다. 술취해 들어오는 밤마다 가족들을 모두 내쫓고 문이닫 문은 더 깊어 잠고 자는 남편덕분에 추운 겨울이나 모기가 극성인 여름에도 밖에서 세 아이와 새벽을 보낼 때가 부지기수였다. 그런 아빠가 딸에는 무척 마귀였나 보다.

지근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날도 만취가 되어 들어온 남편은 연탄 아궁이에 연탄집게를 올려놓으며 딸구 어지럼 팔러 죽이겠다고 했다. 큰애만 남고 작은 애들과 난 슬다슬다 남편이 칼을 집던 그 순간에 죽지 않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장롱 속으로 숨었다. 큰

년. 못배웠으면 못배운 대로 있지 아는 척은"이라며 함부로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바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취한 남편이 때려도 그가 잠이 들면 애들과 조용히 들어가 자고선 다음 날 아침엔 잊어버렸던 것일까. 아니 그건 잊혀짐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였다. 어떤 부인들처럼 바가지 굵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꾸는 일이었다.

유독 기대를 많이 했던 큰애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성격이 점점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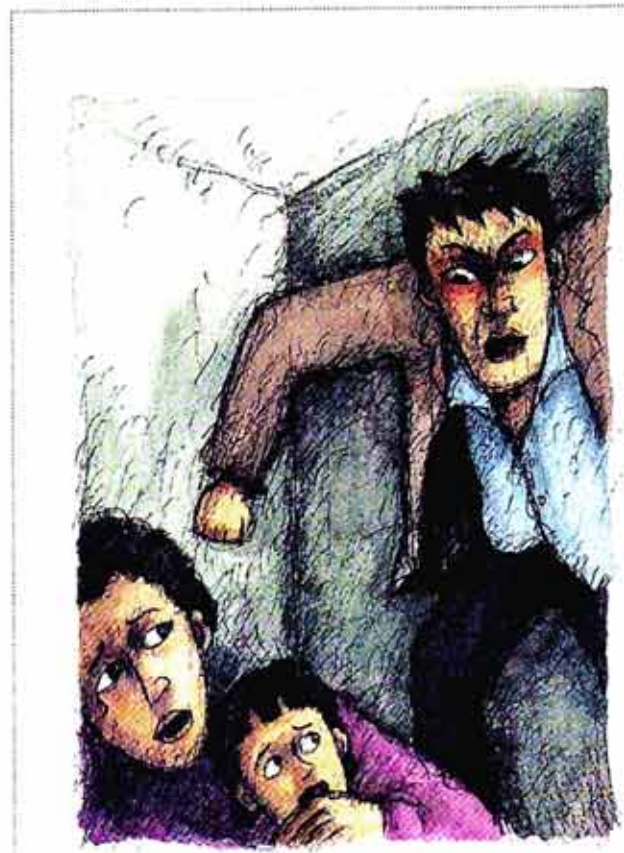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 신경을 썼는데도 말이다. 처음 중학생 학부형이 된 나는 작고 마른 그 애가 큰 가방에 사탕이며 도시락을 넣어 40분거리의 사내 중학교를 통학하는 것이 안타까워 조금씩 모은 돈으로 비타민을 사먹이곤 하였다. 어느날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가방을 받으러 집앞 정류장에서 기다

리다 같이 들어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선 "그년한테 해주느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신경써 봐" 리며 또다시 욕을 했다. 아끼는 자식. 나만의 딸이 아닐진대 그러는 그를 보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점점 큰딸은 아버와의 사이에 두렵게 벽을 쌓아갔다고 나중에 아내에게 말해주었다. (계속)

HOME TV 인터넷 (주) http://www.home.co.kr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91-6 삼강빌딩 3층  
전화 0212295-6660 / 0212295-6669

HOME TV INTERNET

HOME TV INTERNET

HOME TV INTERNET

# “불교 정보화의 새로운 출발”

## TV인터넷의 사찰 전산화

- 기존TV에 단말기 연결
- 컴퓨터를 몰라도 간단한 리모콘 동작으로 인터넷 가능
- 불교계 뉴스를 현재시간으로 확인
- 국내외 인터넷 정보 사용 및 불교정보 검색 가능
- 사찰에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 및 전자우편 확인
- TV 인터넷을 통한 불법 듣기 가능
- 신형상담/불법공부/신도와의 대화가능
- 뉴스,홍소풍,경재,문화등의 다양한 실용 정보 제공
- 화면 컬러 프린팅 지원
- 불교신자들 간의 대화 공간 제공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 TV인터넷의 강력한 기능

- 비디오와 같은 손쉬운 연결
- 전화선을 이용한 PC통신보다 20배 이상 빠른 고속 인터넷 접속
- 마우스가 내장된 무선키보드를 기본 제공하여 사용의 편리성
- 인터넷망을 이용한 운영체제(OS)자동 업그레이드
- 지루한 부팅 시간없이 5초내 단시간 인터넷 접속
- 고정의 열려없이 뛰어난 안전성
- 기존의 TV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성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 전국지사 및 대리점 모집합니다

## 세계최초!!! 위성인터넷 실시

- 홈 TV 인터넷이 불교계에서는 세계최초로 전국 사찰에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TV 인터넷은 위성 인터넷을 이용 최신의 불교정보를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서비스 지역의 제한이 없습니다.
- 최고 3Mbps의 초고속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불교 정보화를 위해서 홈 TV인터넷에 제공합니다.
- 희망하시는 사찰이나 신도분들에게 위성수신 안테나를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해 드립니다.

수신기  
TV  
무선 리모콘  
무선 키보드

◎ HOME TV INTERNET 구성 : 기존 TV + 수신기 + 무선키보드,마우스 (수신기 가격 : 395,000원, 부가세 별도)  
◎ 인터넷망 : 케이블 TV, ADSL, ISDN, LAN, 전화선

· 사찰정보화 협력업체  
(주)현대불교신문사 : (02)737-8881(대표)  
부다과야 직통 : (02)732-1520